

보도시점 2026. 4. 27.(금) 10:00 배포 2026. 4. 27.(금) 10:00

‘친환경농업TF’ 첫 회의 개최, 재배면적 확대 방안 모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논의 시작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4월 24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분과 제1차 ‘친환경농업TF’ 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첫 논의의 장으로,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출범한 ‘친환경농업TF’는 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2030년까지 친환경 재배면적을 현재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및 관련 협의체에서 그간 논의되어 온 친환경농업 관련 과제들이 공유되었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의 역할 강화, 생산·가공·소비 부문별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등 기존 논의 사항들이 소개되었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친환경농업법 개정(안)의 내용도 공유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위원들은 현재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가 정체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 지원 위주의 정책을 넘어 가공·소비 지원

을 통해 생산을 견인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특히 친환경농업 지역 확대,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확대 및 판매 지원, 친환경 직불제 개편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호 위원장은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는 단순한 정책 목표를 넘어, 탄소중립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농업 경영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TF 논의를 통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친환경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농어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이은영	02-6260-1251
		담당자	연구관	이진석	02-6260-1222

